

원불교100년, 교화단으로!

원기 98년 교화연구소 정기 연구발표 I

교화단의 창의적인 운영방안 모색 및 교화단 교화 사례 발표

일시 : 원기 98년 6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주관 : 교정원 교화연구소

㉠ 차 례 ㉠

□ 회 순

□ 교화단의 창의적인 운영방안 모색..... 5
최용정 교무

□ 밀양교당 교화단 교화 사례발표.....21
권화정 교무

□ 순교단을 통한 다양한 교화 사례발표..... 21
박원신 · 이윤진 교도

□ 메 모

㉠ 회 순 ㉠

1. 개 회

2. 입 정

3. 설명기도

4. 격려사

5. 발 표

- ◆ 발표 1 : 교화단의 창의적인 운영방안 모색
(최용정 교무/김천교당)
- ◆ 발표 2 : 밀양교당 교화단 교화 사례발표 (권화정 교무/밀양교당)
- ◆ 발표 3 : 순교단을 통한 다양한 교화 사례발표
(박원신 · 이윤진 교도/남군산교당)

6. 마무리 인사

7. 폐 회

발표 1

교회단의 창의적인 운영방안 모색

최용정 교무

▷ 원불교 김천교당

교회단 교회의 창의적인 운영방안 모색

최용정 교무(김천교당)

얼마 전 ‘매일경제 3월1일자 신문’에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알라도 3·1절은 모르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조사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3,919명을 대상으로 한 ‘3·1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조사’ 결과 알고 있는 초중고생은 43%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부족한 역사교육과 유적관리 소홀로 3·1절이 의미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이 신문은 꼬집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 교단을 바라볼 때에, ‘십인 일단의 교회단 조단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조사한다면 어떠할까?

대중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구원할 새회상 건설의 밑그림을 직접 구상하시고, “앞으로 시방 세계(十方世界)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 일단(十人一團)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다”고 제시하시고 실행해 보여주셨다.

서품6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국 교당에서 십인 일단의 교회단 조단법으로 교회단을 운영하고 있는 교당은 몇이나 될까?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나 될까 의문이 간다.

교화가 꼭 이 십인 일단의 조단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현재 교화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해주신 우리교단 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이러한 법문 말씀이 교화에 실행되지 않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퇴색해 간다는 것은 원기100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역사교육과 유적관리 소홀로 3·1절의 의미를 빠르게 잃

어가고 있다’ 는 신문보도와 우리 교단의 교화단 교화의 현주소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방식대로 하면 지금은 편하나 앞으로 교화성장과 교단의 발전은 계속해서 침체현상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 그동안의 생각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화단은 ‘곧 시방세계를 대표하고, 시방을 한 몸에 합한 이치’ 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주어졌음’ 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대중사님께서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구인제자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 단은 곧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다” 고 하시면서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화단 조직은 ‘곧 시방세계를 대표하고, 시방을 한 몸에 합한 이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조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가 들어 있다는 그런 **소중한 의미**이다.

또한 교화단 조단법에 우리는 구인선진들께서 법인성사를 나토시기 전 대중사님께서 구인단원들에게 방위를 정해주시고, 각자가 주어진 방위에서 일체 모든 생령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 이르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영원하는 기원과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방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불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종교다’ 는 것을 이 단 조직에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아홉 사람에게만 공력을 들이면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간이 한 조직’ 의 의미보다 ‘각자가 주어진 방위에서 일체 모든 생령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고 영원하는 기원과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방위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는 사실이다.

이것이 먼저 모든 단원(교도)들에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재가교화단 편성을 방위별로 재조정하고 명칭도 바꿔 보자.

이제는 대중사님의 원대한 경륜과 포부가 들어있는 체계적인 교화단 조단법으로 편성해 교당 교화에 활력을 불어 넣어보자.

현재 출가교화단은 28수(각·항·저·방·심·미·기·두·자·삼...등)와 방위(단장·중앙과 8방인 건乾·감坎·간艮·진震·손巽·이離·곤坤·태兌)로 편성이 되어있어 방위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재가 교화단은 각 교당별로 제각각 편성되어 있어 방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

각 교당 교화단 명칭을 보면 천지단·부모단·동포단·법률단·은혜단 등과 1단, 2단, 3단 등 숫자로 구성하는 등의 교화단으로 제각각 편성되어 있다.

이제는 교화단을 28수에 맞게 구성하고, 명칭도 방위로 정해서 그 방위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상통하술의 초기교화단의 조단법을 되살렸으면 한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상통하술의 교당문화가 질서 있게 정리되리라 본다.

따라서 교구에서는 각 교당 회장단을 각角단으로 구성하고, 교당에는 항允단부터 구성해 9단이 형성되면, 저低단으로 만들고 저단 9단이 형성되면, 방房단으로 그 다음 심心단, 미尾단 . . . 등의 순서로 교화단을 구성해 나가면 된다. (교화단 수가 많은 교당), 교도 수가 적은 교당도 역시 항允단부터 구성하되, 방위로 (단장團長과 중앙中央 그리고 8방인 건乾(서북), 감坎(북), 간艮(북동), 진震(동), 손巽(동남), 이離(남), 곤坤(남서), 태兌(서)) 교화단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교화단을 편성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관심사별로, 또래별로 만날 수 있는 교화단을 구성해 주고, 연원을 단 경우 함께 구성하거나 그가 연원을 단 사람이면 단장團長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기독교에서는 구역 조직이라 하는데 2명에서 12명 내외로 구성하되 구역의 조직은 거주지와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지리적 조건을 구분해 행정단위로 제한을 한다. 그리스도가 제가를 택할 때 12사도를 두고 교화하신 것에 뿌리를 두고 한 조직의 최고의 숫자는 12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초기교단의 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재가 교화단에도 절부와 절부보를 만들어 주어 교화에 시너지 효과를 얻게 하자.

현재 출가 교화단만 절부와 절부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재가 교화단에도 절부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절부와 절부보 뿐만 아니라 방위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음을 확인 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인교구에서 ‘각자 단장되기 운동’ 선포식을 준비 할 때 절부와 절부보를 선물로 주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교화단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재가들이 무슨 절부와 절부보가 필요하며 거센 반대에 이루지 못했지만 교도님들이 그런 의식을 필요로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단지 법인절 때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의미가 살아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절부를 만들 때 교도증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교역자 신분증처럼 뒷면에 방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제작하거나, 명함크기의 금장으로 만들거나, 유에스비 잭이 있는 카드나 휴대폰 고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절부와 절부보를 만들 때 방위에 해당되는 색상을 구분해서 어느 방위에는 어떤 색상이 주어지는 지도 지역별 방위색상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진다.

넷째: 단장훈련과 예비단장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어 예비중앙훈련도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훈련은 기질변화를 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므로 교화활성화를 이뤄가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2만 단장 양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역시 훈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훈련을 했다고 모두가 단장을 잘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원기100년을 앞두고 그래도 책임과 질서가 있는 교화가 이뤄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는 하지만 교무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중요성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교도들의 반응도 달라짐을 현장에서 알 수 있었다. 특히 교무님의 반응이 없으면 훈련하는 날에도 그 교당 교도들은 훈련에는 전무였고, 교당행사를 강행하고 참석을 안 하는 등의 반응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훈련에 교무님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래야 어떤 훈련이 진행되고 교당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준비해줘야 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예비단장훈련은 단원들이 계속해서 단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원인 동시에 단장이 되기 때문에 단장이 되었을 때, 단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단장은 정특이 되어야 임명이 되는데 예특인 교도(단원이)가 예비단장훈련을 이수 했으니 단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교당사정에 따라서 임으로 시키고는 있지만 이는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중앙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직 중앙이나 단원을 예비단장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중앙이 단장이 되었을 때 그 중앙 자리가 당연히 비어있기 때문에 단원 중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격인 역량을 갖춘 예비중앙을 길러 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단원들을 훈련시키므로 인해 그 역량을 갖춘 단원이 많이 배출 되면 배출 되는 만큼 교화단은 계속해서 만들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단, 현재방식의 교화단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십인 일단의 조단법으로 단이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기95년 경기인천교구에서는 단원이 곧 단장이니 ‘각자 단장되기 운동’을 실시해 선포식을 하고, 예비단장훈련을 실시해 단장을 양성해야 한다고 처음 발의하고 시작할 때 “무슨 예비단장이 있냐”며 “교화를 해봤냐”, “교화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교화를 말하냐”며 비아냥의 소리도

많이 듣고 시작했지만, 2만인 단장 양성을 해가는 징검다리 역할은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

현재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단장훈련은 경인교구외 타 교구에서는 중단하거나 아직 체계적인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든다.

다섯째: 단원(교도)들이 상시일기를 기재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12월까지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알뜰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활용이 잘되는 교당도 많을 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교당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점검을 하고자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는 말이 있다. 좋은 자료를 교화단원(교도)들이 활용을 잘 하면 공부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숙겁다생의 업장을 녹이는 소중한 책자가 될 것이요, 무명을 밝혀주는 혜명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그 몇 가지를 보면 첫째, 교무님이나 단장님들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다.

둘째, 체크하는 연습이 되지 않아 잘 안되어서 하다 만다.

셋째, 휴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체크하는 것이 너무 많다. 6개월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 중에 ‘교무님이나 단장님들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다.’ 는 것이 제일 많다는 것은 교당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될 것이지만 그외 휴대하거나 체크하는 문제는 이 시대에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동 유·무념처럼 두세 개의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공하듯이 계문도 자신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게 유·무념과 함께 조항 두세 개를 넣어 휴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리플릿 식의 점검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적은 수의 교당과 어르신들이 많은 교당에서는 교화단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불편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어 졌으면 한다.

교화대불공의 교화단 교화!

2만인 교화단장 양성에 다함께 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뜻과 같이 그리 쉽게 되어 지지 않는 것이 교화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원기100년을 앞둔 이때 교무님과 교도님이 합심협력하면 못 이룰 것도 또한 없으리라 본다.

‘교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대중사님께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빠른 방법이라고 하시며 밝혀주셨으니 이 시대에 맞게 실행해보자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5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 발표 내용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평소에 느낀 바를 어떤 부분은 현장에서 실행해 보기도 했고, 앞으로 해보고자 했던 것도 있으나 아직 현장 주임교무로 체 1년이 못되는 상황에서 발표에 중점을 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에 대해 각자 교화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창의적인 교화 방법들이 많이 나와 교화대불공의 일원화가 꽃피워지기를 바래본다.

발표 2

밀양교당 교회단 교회 사례발표

권화정 교무

▷ 원불교 밀양교당

밀양교당 교화단 교화 사례발표

1. 밀양교당 현황

1) 교도 구성

밀양은 인구 10만인 작은 농촌시에 가까이 2개 교당이 있으며 5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당으로 유치원과 가정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교도구성은 0-10세 10명, 10대-10명, 30대-10명,

40대-15명, 50대-15명

60대-15명, 70대-15명, 80대-10명정도로 구성 되어 있다.

2) 법회 및 교화단 현황

법회-일반법회, 학생법회(월1회), 마음공부방-월2회

교화단현황-10개단(일반8단.어린이1단,학생1단)

단 구성- 70세 이상인 교도-4단

50,60대- 2단

40대-1단

30대-1단

2.내가 생각하는 교화단 교화?

내가 생각하는 교화단 교화란?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점검하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공부하게 하는 맞춤형 교화의 장이라 생각한다.

원불교교도가 되어 교당에 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그 목적을 향해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화단 교화는 그 목표를 공고히 하고 바르게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 모임이다.

나는 남들처럼 교화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교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단 간사시절 교무님께서 교화하는 모습을 보며 깊이 새겨진 몇 가지가 있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이법 만났을 때 부처되는 길로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 교당의 발전은 공부꾼으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 교화는 교화단으로 한다.

이 세가지에 담긴 뜻을 늘 강조해주셨고 그렇게 교화하시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모신 교무님은 정남교무라서 그런지 교도 집을 방문하며 교화하는 것을 잘 하지 못 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전화나 단회만으로도 교화가 잘 되는 것으로 내 눈에 비쳤다. 꼭 순교를 못해도 이렇게 교화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 뒤 출가를 하고 교당 부교무로 보좌교무로 있을 당시 일반 교화단회를 하는 광경을 보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단회를 위한 단회, 친목식 단회, 단비받는 단회, 특히 법회때 함께하는 교화단회는 세세하게 교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 마음을 채워 주기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은 내가 직접 일반 교화를 할 수 있을 때는 교도들의 소리를 들어 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을 실현할 현실이 나에게 갑자기 왔고 난 준비 없이 어느새 교당의 책임자로 임하게 되었다.

교화대불공 너무 어렵고 생각만 해도 늘 답답하고 스트레스다.

그러면서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을 내가 그나마 잘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계획하고 준비된 것은 없지만 위의 세 가지 내용을 염두 해 두고 교화를 시작한 것 같다. 그렇게 시작한지 주임교무 3년차 교당을 맡고 무계획 속에서 하루하루 교당과 기관의 바쁜 일과 속에서 바르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강조하고 실행하고 있는 교화는 내 마음속에 담아둔 그 생각들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위의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 들였던 것은 다음 5가지이다.

1. 언제라도 교도가 원하는 시간에 단회를 하게하고 그 단회에 꼭 참석 한다.
2. 단회에 참석한 교도는 한 가지라도 공부 꺼리를 손에 쥐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배운 것을 상시기간 동안 활용하게 한다.
3. 다음 단회 때 상시기간 동안 공부한 내용으로 문답 감정을 하게 한다.
4. 될 때 까지 반복하고 확인한다.
5. 단회 때 주제는 교단정책 사업이나 교화단 마음공부책을 참고하여 근기 따라 적절히 권장하고 실행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행 해 보았지만 단회가 쉽게 정착되지 않았다.

모두가 모이는 것도 요즘 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어린아이들이 달려 있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특히 이런 식의 공부는 좋은 것도 있지만 부담가는 공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교화단회를 해 본 과정을 보면 많은 변수도 생기고 생각처럼 교도가 쉽게 따라 오지도 않고 상시기간동안 실행하는 교도도 많지 않았다.

나는 똑 같은 방법으로 그 목표를 놓지 않고 해 왔다.

아무리 바쁜 일과 속에서도 교도가 단회를 실시하겠다는 날만은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온전히 투자했다. 단회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평균 3시간 이상 문답한다. 그것도 짧다. 퇴근 후에 이루어지면 주로 밤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소 자주 소통하고 순방 하지 못하는 것을 단회를 통해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해 서였다.

이렇게 해보니 여러 단계의 교도가 한 자리에 모여도 문답감정은 각각 달리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울 점도 있고 선배의 인생 경험도 큰 자료가 된다.

그래서 서로가 스승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교단 정책으로 실시하는 2만단장 만들기에 좀 멀어지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저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단장이 교화단회를 진행할 때 단원들의 질문과 의심된 부분을 상황 따라 문답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만단장 훈련을 마친 단장의 변화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단원 책김과 유무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공부심이 생겨나는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단원들이 상시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내 놓게 하는 부분과 그 이야기를 공부 길로 인도하고 감정하기에는 미흡했으며, 그런 단회가 반복 될 때는 크게 변화를 가져올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교도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단회의 과정들을 교무는 지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저가 하고 있는 교화단 단회는 혼자서도 충분히 견사 할 수 있는 교도수가 될 때 가능할 것이다. 교도수가 너무 많거나 단장이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교당은 이렇게 하지 않고 향단 훈련으로 가능하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교당에서 단장 중앙 훈련을 실시하면서도 현재 그 비중이 교화단회에 실려 있다. 이유는 단장이나 단원들이 교무가 단회 때 문답하는 공부의 형식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다.

단장의 능력 따라 앞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단은 격월로 또는 분기별로 들어가 챙겨 볼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단장은 그 힘이 생길 때 까지 반복해서 교무가 도와서 할 생각이다.

교당의 형편상 단회를 할 수 없거나 노인들만 계셔서 하기 어렵다거나 몇 사람 안되어 단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개인적으로 권해보고 싶은 것은 80세 이상 된 노인교도도 그분들에게 맞게 문답해 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려면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교도들은 어렵다고들 할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힘들어요. 못해요. 안 해요. 교당 안 나와요. 단장 안 할래요. 하는 이유가 많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부담가지 않게 다가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게 하는 장을 만들었다.

젊은 사람들과 속도는 못 맞추지만 그분들에게 맞는 공부가 되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단회에서 맞춤식 문답을 하고 상시기간에 한번이라도 실행해 보게 할 때 변화는 조금씩 오는 것이다. 공부는 머리로 생각으로 변화가 더디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한다. 때문에 끝까지 한번만이라도 실행해 보게 한 후 다음단회에 또 문답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3. 2년 5개월 동안 하고 있는 단 활동 상황들

매월 1회 단회를 실시하고자 하나 교도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매월 실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고, 시간을 내는 것도 귀찮아했다.

아직도 일부 단은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달도 있다.

처음 교화단회를 시작 한 1년 동안은 70세 이상 되는 4단은 전제로 모여서 형식적인 단회만 했다. 그분들은 챙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단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교무 개인적으로 여력이 달지 않았기에 잠시 미루어 둔 셈이다.

3년전 처음 일반교화를 맡을 당시 법회출석의 대다수가 70세 이상이었다. 젊은 층이 몇 있었으나 법회를 꾸준히 보는 교도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10년 후의 밀양교당이 어떻게 될지 훤히 보여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교당과 2기관을 맡은 나로서는 교화하는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시간이 있어도 몸이 당해 내질 못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법회와 단회만은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다행히 조금씩 일어나는 젊은 교도들이 있어 중점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공략한 것은 이제 시작하는 30.40.50대 젊은 단이다.

이 세대는 아직 원불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공부길을 체 잡지 못하는 교도가 대 다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장이 단회 날을 잡을 때는 1년 동안은 단원이 가장 많이 참석 할 수 있는 날을 잡아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가 직장을 나가거나 어린이가 있다 보니, 단원들이 많이 오는 날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하니 단장은 한사람이라도 챙겨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 단회에 온 교도를 놓치면 다시 만날 기회가 적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을 들여야 했다.

예를 들면 원불교가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경계를 잡아 보게 하고 교리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연세가 많으신 교도님은 평소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해 보게 하고 그때 마다 염불을 하는 것으로 마음 챙기기를 해 보게 한다.

오랫동안 교당을 다녀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는 교도에게는 간단한 조석심고부터 챙기는 것을 유무념 잡아 보게 하고 교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잡아주기도 하고 잡아보게도 했다.

그렇게 단회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러나 아직도 남자 교도들은 안착 되지 못하고 일부 교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화단 2년째 되는 해는 상시일기중 유무념공부를 위주로 문답감정 했다.

단회때 마다 확인하고 확인하기를 매번 처음처럼 반복에 반복을 거듭했다.

그렇게 해보니 이제 겨우 유무념이 잡힐 정도이다.

이렇게 수없이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법으로 공부의 줄을 잡지 못하면 자신 변화가 오기 어렵고 또 인연 따라 환경 따라 신심이 변하는 교도가 있게 되고 교당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부꾼을 만들어 부처를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식적으로 오는 법회에 공을 들였고, 법회에 왔을 때 얻어 갈 것이 있어야 한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반복했음에도 대개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유무념을 대충하고 있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는 단회날을 매월 정한 날에 하도록 했고 모든 교화단은 단회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을 각인 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단회를 통해 유무념공부를 뿌리내려야 함을 다시 선포했다.

미루어 오던 70대 이상 노인단도 같은 방법으로 유무념 잡기, 문답감정하기를 시작했다. 더디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충하는 공부가 아니라 상시일기 점검표를 붙혀 놓고 한번이라도 직접해보는데

중점을 두고 그 방법은 그 사람 사람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손에 쥐어 주듯이 문답감정을 해 주었다.

그래서 올해는 상시일기 점검표(황도국교구장님표)를 단회를 하는 모든 교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어렵다고 생각한 노인교도님들도 자기 이야기를 내놓게 되고 힘겨운 내면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마음을 보고 챙기는 길도 조금씩 찾아가게 되고 그것을 문답해 줄 수 있었다. 그렇게 해보니 머리로 할 때와 직접 체크를 할 때는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고 공동 유무념으로 경전봉독 범위도 매달 정하여 주니 챙겨 공부하게 되더라는 좋은 평도 나왔다.

이렇게 3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문답감정을 하며 단회를 실시해 보니 빠지지 않고 한 교도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상시기간 동안 교무와는 문답을 못해도 동지 간에도 문답 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동지들 끼리 서로 챙겨주게 되어 처음 당시와는 다른 변화가 오고 있다.

또 하나는 스스로 공부의 경험이 생겨지니 교도가 강연으로 법회에 설 수 있는 경우도 생겼다.

이것은 저희 교당으로는 많은 변화라고 본다.

이렇게 하기까지 힘을 실을 수 있었던 것은 교무의 능력으로 공부의 질을 높혀 줄 수 없는 부분은 1년에 1회 이상 젊은 교도들만 따로 전문공부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실시했다. 거기에 매달 2회 마음 공부날을 정하여 원무의 도움을 받아 마음공부반을 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합해졌을때 작지만 변화는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유무념을 못 잡은 사람도 있고 잡았으나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교도님들도 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교도 한사람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부하는 교도가 있는 교당은 미래가 밝게 보인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그날 까지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4. 향후 교당 교화단 운영에 관한 계획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지만,
전교도가 상시훈련으로 자립이 설 때 까지 반복할 것이며,
모든 단원이 자력으로 단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까지
교무는 단회의 진행을 도울 것이며
정기훈련 11과목 공부도 단회를 통해 실시 해 볼 계획이다.

5. 교당 교화단 체제 정착을 위한 선행 과제

지금 교단에서 하고 있는 2만 단장훈련과 예비 단장훈련에 좀 더 심화된 단장 역할을 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한때 흐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무를 대신 할만한 단장 역할을 키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화단을 운영할 만큼의 여건이 되지 않는 곳이 수없이 많다.
현장의 어려움이 가지가지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교단정책사업도 없지 않다고 본다.
단장이 없거나 교도가 없는 교당에서 교무는 교화라는 큰 과제를 늘 어깨에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곳에 임하는 교무님들의 의지를 살려 내는데 교단은 진정으로 무안한 공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6. 교화단 중심의 교화체제 정착을 위한 교당 교무의 자세

대종사님께서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을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각자가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이다.

오직 한스승(교당과 기관의 책임자)의 올바른 가르침이 부족한 탓은 아닌지?

“대불공”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심을 다해 끊임

없이 불공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7. 교화단 중심의 교화체제 정착을 위한 교구나 교정원의 역할

2만 단장 훈련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지금 쯤 그 단장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점검하고 평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장들이 단회를 진행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교무는 단장이 교화단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현실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 보완을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교단은 준비해 주어야 한다.

8. 이상적인 교화단 중심의 교화체제 정착을 위한 제언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님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동안 모든 분들이 해 오신 그것이 방법이다.

무엇이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선택하여 신념을 가지고 해 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내가 생각한 교화단 교화를 지금까지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왔다.

지금도 좌절 할 때도 있고 힘도 들지만 반드시 해야 되기에 기필코 해낼 것이다.

발표 3

순교단을 통한 다양한 교화 사례발표

박원산·이윤진 교도

▷ 원불교 남군산교당

100년 청업봉찬으로 결복교운을 열어가는

100년 청업봉찬

남군산교당의 교화 사례 발표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원문고 남군산교당

목 차

100년 청업봉찬

1. 남군산교당 교화단 주요 활동
 - 1.1 주제별 수요법회
 - 1.2 다양한 행사 진행
 - 1.3 교당내 조직 활성화
 - 1.4 활발한 동아리 활동
 - 1.5 공부하는 참고도 되기

2. 향후('98년~100년) 교당 중점 추진사항
 - 2.1 고정핵심정책 연계 활동 지속적 추진
 - 2.2 남군산교당만의 경쟁력 확보 및 유지

3. 남군산교당 순교단 활동
 - 3.1 순교단 편성 및 활동 상환
 - 3.2 순교단 주요 활동 사례

○ 원문고 남군산교당

1. 남군산교당의 교회단 주요 활동

100년 성업유전



○ 원목교 남군산교당

3

1.1 주제별 수요 법회로 눈높이 공부

100년 성업유전

주요내용	<p>➤ 매주 수요일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눈높이 공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주 수요일 : 법회인 대상으로 의무사항 설명 회화/강연 - 둘째주 수요일 : 부부중심의 영혼의 법회 - 셋째주 수요일 : 신입교도 대상으로 원목교 기초 이해 - 넷째주 수요일 : 단장&중앙, 수교단이 모여 '교당단 책자' 사전 공부와 교화 일정/방향, 기타 교당 행사 일정 등을 협의
주요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계층으로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내용으로 눈높이 공부 가능 • 일요 법회에 불참한 경우에도 최소 일 1회 법회 주가 참석 가능함 • 단장&중앙의 역할 '교당단 마들공부' 사전 학습으로 효율적인 교당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주요 교화 방향 협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신입교도의 초기 교당 적응 및 코트코서의 교당예배 등을 갖추게 함
향후 의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혼의 법회 활성화 : 부부 중심의 민원 솔리기 및 강화를 영적 확대 • 신입교도 법회를 신입교도코서의 단장(필수) 코트그림으로 정착함 • 단장&중앙, 수교단 법회를 단장 협력 향상과 교화 지원 차원으로 집중함.

○ 원목교 남군산교당

4

1.2 다양한 행사로 즐거운 교당 만들기

100년 생일무진

주요내용	<p>➢ <u>교당에 오는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진행</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각개교절 : 교도 상호간 선물 주고 받기를 통한 법정 나누기 - 야외법회에 '깜깜대회' 진행으로 개인/교화단 장기 발을 및 단안 유도 - 의식실천대회, 교전충장대회 주진으로 공부와 교화단 단안 유도 - 연말 시상식 : 다양한 합류(졸선, 분단장신 등)의 우수자 발을 및 시상
주요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12월 : 교전충장대회를 열어 교도로서 기본적인 사함 숙지하게 함 • '97년 12월 : '의식실천대회'를 열어 기본적인 의식 절차 진행 가능하게 함 • 매년 대각개교절 선물 주고 받기로 또 다른 재미 제공과 법정을 두텁게 함 • 매년 연말 개인&단체 시상으로 선의의 경쟁 및 특별교도 선정
향후 역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진행해 온 행사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전으로 추진 • 다양한 행사 발을 및 프로그램 내용의 변화를 통한 매너리즘 탈피 • 행사를 통한 교화 연계 추진 및 즐거움이 가득한 교당 만들어가기

1.3 교당조직 활성화로 교당주인 되기

100년 생일무진

주요내용	<p>➢ <u>교당내 조직원 각종 조직의 활성화로 각 분야에서 주인되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교단 : 교화 방향성을 설정하고 3가지 활동방향으로 교화 활동 전개 - 청은회 : 부부중심의 인원 가입/활동 교구/지구행사 지원, 봉사활동 등 - 불공회 : 바자회/일요법회에 출품 판매 수익금으로 교화 활동 지원 - 여성회 : 어버이날 등달아 뜨리기, 지구 행사 지원, 봉사활동 등
주요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교단 : '97년말 결성 이후 교화 집중으로 '98년초부터 성과 가시화 • 청은회 : '97년 전국보도발양대회, '98년 산상릴레이 기프 등 지구 행사 지원, 봉사활동 전개(군산 호프병원 무료봉사, 학생봉사활동 지원 등) • 불공회 : 일요법회 차대접, 야외법회 음식 제공, 스승의 날 역대 교무 선물 등 • 여성회 : 군산의료원 안내 봉사(7년), 지구행사 지원, 교당 특별 행사 지원 등
향후 역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직의 전정 인원 확보(절대 인원 증가) 및 활동 방향의 다양화 추진 • 신입교도를 대상으로 조직 활동 권장하여 초기 정착 지원이 가능하게 함 • 청은회, 여성회 등 대외적 활동이 강한 조직의 지구행사 지원 역량 확대

1.4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화 지원 하기

100년 성립유전

<p>주요내용</p>	<p>➤ <u>교당내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교도간 화합 도모와 교화 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회 : 매월 1회 인근지역 산학 실시, 성지순례(야외법회) 추진 - 축구단 : 교구/지구 행사 참가 및 연습과정을 통하여 화합 도모 및 입교 - 합창단 : 지구 합창단원의 대부분을 남군산교회가 소속되어 활동함 - 에어로빅 : 한동안 예술제 참가 및 각종 행사 시 동원 지원(남군산 공신 동원단)
<p>주요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회 : '96년말 결성 후 매월 1회 산학 행사 추진(현재 24회 추진) • 축구단 : '97년 군산지구 우승, 중앙지구 우승(참가 선수 입교) • 합창단 : 매년 한동안예술제, 심장병 어린이돕기 합창대의 참가 등 • 에어로빅 : '97년 결성 후 한동안 예술제 참가, 체육 행사 시 동원단 역할
<p>향후 의견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직의 적정 인원 확보 및 활동 방향의 다양화 추진(특히, 산학회) • 신입교도를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권장하여 초기 정착 지원이 가능하게 함 • 합창단 등 대외적 활동이 강한 동아리의 지구행사 지원 역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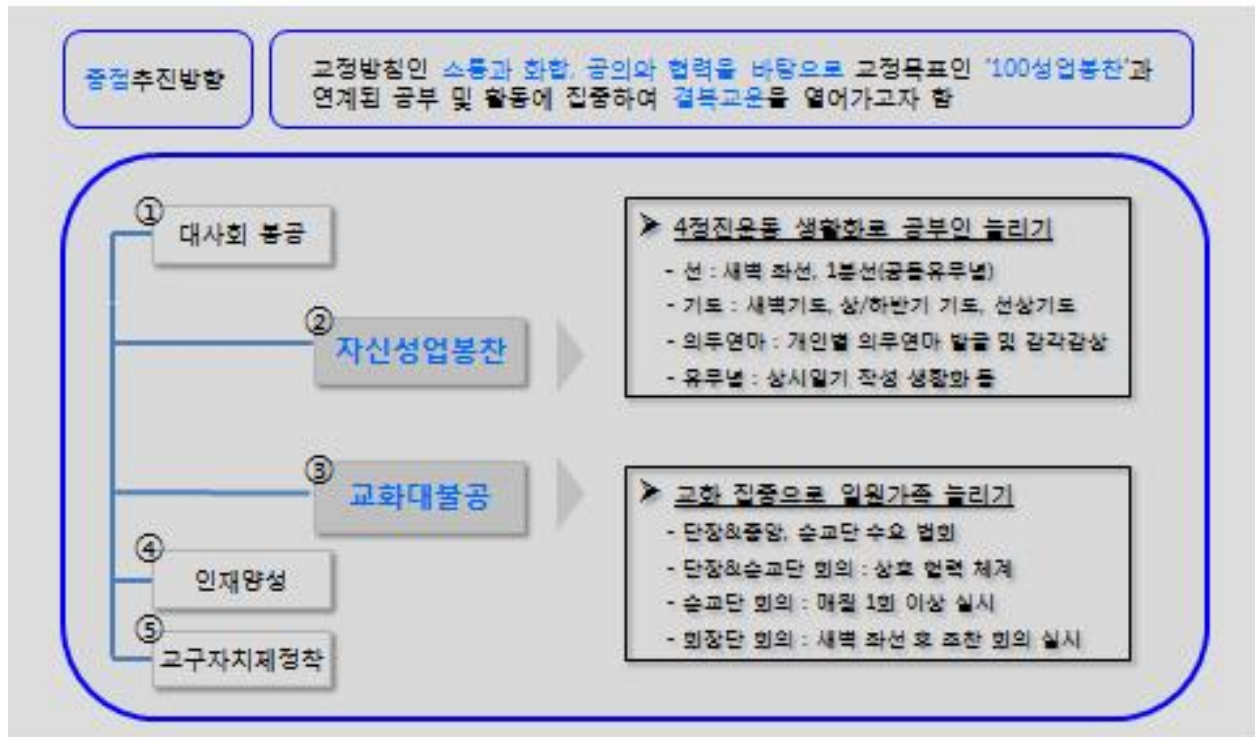
1.5 공부의 생활화로 참고도 되기

100년 성립유전

<p>주요내용</p>	<p>➤ <u>신앙과 수행을 병진하여 공부하는 참고도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위합상출연 : 매년 실시하는 법위합상 출연에 많은 교도 참여 - 수요법회 : 매주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능력이 법회 실시 - 상/하반기 기도 : 상/하반기 기도 실시(새벽기도 50여명 참석) - 새벽파전/1분선 : 매일 새벽파전(10여명 참석), 단원 전체 동시 1분선 실시
<p>주요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위합상출연 : '96년부터 초선지인 만덕산 출연원 출연에 많은 교도 참여 • 수요법회 :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능력이 공부 실시(신입교도 법회 등) • 상/하반기 기도 : 기원은 중 교화 보급 대상 인원을 효율하며 기도함. • 1분선 : (남자1단)일정한 시각에 단원원이 동시에 1분선을 실시함.
<p>향후 의견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의 10분 성업 일기(공통유무년, 자신성업분한, 교화대분공) 작성 의무화 • 수요법회 활성화로 진정한 공부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 수행활동에 참여하는 교도 수 증가를 공부하는 교당 분위기 조성 노력 지속

2. 향후('98년~100년) 교당 중점 추진 사항

100년 성회주간



○ 원목교 남군산교당

9

2.1 교정핵심정책 연계 활동(함께하는 교화대불공) 지속적 추진

100년 성회주간

교정정책안내 '함께하는 교화대불공!' 에서 제시한 20항목중 일반교도가 지킬 수 있는 10항목은 이미 우리 남군산교당에서 잘 하고 있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항목이라는 사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추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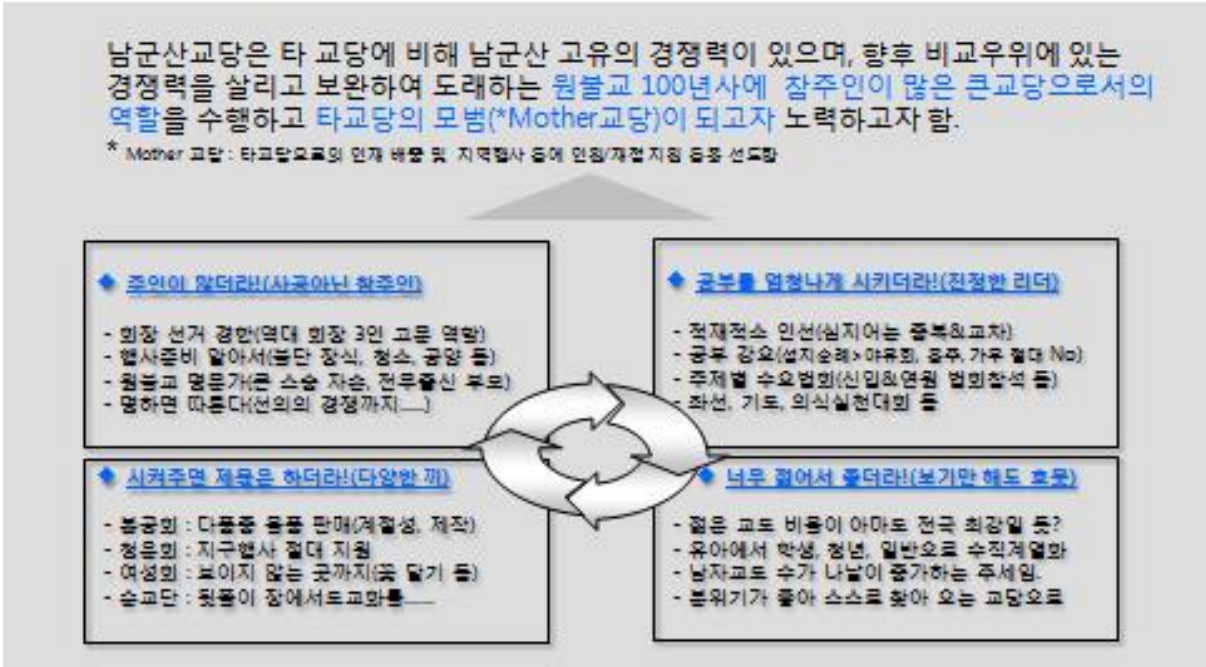
- ✓ 원목교 100년 기념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 ✓ 교당단 중심 교화 정착위해 적극 참여하기
 - ✓ 단장후원으로 단장자격 취득하기
- ✓ 교당내항시 주의사항을 실현하는 법의 만들어가기
- ✓ 아들공무원 개성로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화현장 만들어가기
 - ✓ 원목교 의례를 성장속에서 전파하기
 - ✓ 성장속 감사운동 함께 하기
- ✓ 현장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화역량 향상해 가기
 - ✓ 줄가연원 9인달기 등... 줄가인재 육성 후원 동참 하기
- ✓ 살리고, 아끼고, 나누는 운동으로... 교화대불공의 실천자 되기

○ 원목교 남군산교당

10

2.2 남군산교당만의 경쟁력 확보 및 유지

100년 생일특전



○ 원불교 남군산교당

11

3. 남군산교당 순교단 활동

100년 생일특전



○ 원불교 남군산교당

12

3.1 남군산교당 순교단 편성 및 활동 상황

100년 생일특간

순교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총 13명으로 구성(연령대별 인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총 6명(40대 1명, 50대 전반 2명, 50대 후반 3명) - 여자 : 총 7명(30대 1명, 40대 1명, 50대(전반 2명, 후반 2명), 60대 1명) *전/반부회장(2), 장로전 부회장(2), 고령기 회복과함, 유망전 중후, 단장(2), 유망(2) 등
활동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잠자는 교도 깨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자는 교도를 해당 단장과 함께 방문하기, 신문 보내기 등 ② 일원가족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중 1명만 나오는 교도를 대상으로 집중 교화 실시 ③ 신입교도 늘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교단 주변 위주의 인원을 대상으로 신입교도 집중 교화 * <u>순교단 수요 협의 → 순교단 회의 → 순교단 활동 → 순교일지 작성/보고</u>
향후 의견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가지 활동 방향(특히 신입교도 늘리기) 지순으로 교도 수 늘리기 • 초기 연합회 지원 활동(조직, 동아리 활동 참여 유도 등) 강화 • 단장/중앙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입교 후 중보목기자 최순화

3.2 남군산교당 순교단 활동 사례

100년 생일특간

잠자는 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단장 역할을 했던 교도(이** 부부) • 부친 별세후 가업으로 잠시 쉬었던 교도(홍**자, 자부, 순자) • 직장 권리로 자주 쉬는 교도(구** 부부) • 단장/중앙과 연계하여 순교(김** 이**, 반**)
일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부임을 통한 교화(김**, 김**) : 돌우이웃돕기(세터민, 해외재난성금), 공보자 순배, 교당 설립 구입 등 • 남여 순교단 상호 지원(고** 부부, 최**부부)
신입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집중 방문(조**, 김**, 최* 부부 등***) • 남자 순교단 직장 교화 집중(정**, 이**, 김**, 최**)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입교 : 산악회(유**, 노**), 축구단(전수 전원) 등
기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교도가 순교단원 활동(김**, 이**) • 일반교도 교화 동참 : 친척/주변(한**동생, 송** 지인 등) • 그날 남군산 분위기가 좋아 스스로 찾아옴(1단 이**, 3단 이**, 15단 이**)

■ 메 모 ■